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9월 30일 금요일 (음 8월 30일) 제165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세상 모든 소리의 향연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9일 저녁 막이 올랐다. 사진은 같은 날 오후 전주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린 '2016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리허설에서 합창단원들이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모습.

도내 자치단체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 지원받았지만

지원금 60% '집행보단 이월'

22억5400만원 중 8억1700만원만 집행
이월된 금액 집행 못하면 예산 반납해야
정운천 의원 "중기청-지자체 함께 협력을"

도내 자치단체들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지원받고도 60%가 넘는 지원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전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인 14번째로 낮은 예산 집행률을 보였는가하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제외한 자치단체 가운데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운천(새누리당·전주을)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집행현황'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관련 예산 실제 집행률은 36.2%에 불과했다.

중기청은 지난해 전북에 22억5,400만원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전북은 이 지원금 중 8억1,700만원만 집행했고, 나머지 14억3,700만원은 집행하지 않고 올해로 이월시켰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미 집행액의 경우 한 차례 이월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이월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예산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 지침에 중기청 예산이 1회 이월이 가능하지만, 그 다음해에는 반납하도록 돼 있어 전통시장 발전을 위해 배정받은 국비가 시장 상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채 반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주차장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겪는 가장 큰 불편 중 하나인 만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기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력, 사업을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개천절 연휴 관계로 10월 3일까지 신문 쉽니다.

백남기 사망진단서 '작성 오류'

진단서에 '심폐정지' 기재… 의협엔 기록할수 없어
윤소하 · 정춘숙 의원 "병원, 사망원인 개념 잘못 이해"

농민 고(故)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 작성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지침과 달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고인의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병원 측에서 작성한 백씨의 사망진단서 상의 가장 큰 의혹은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기재했다는 것"이라며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의협 '진단서 등 작성·교부 지침'에는 "(직접사인에)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을 기록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지침은 "사망하면 당연히 나타나는 '죽음의 현상'은 사망의 증세"라며 "절대로 사망원인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오류가 고인의 사망에 있어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쳐 병원에 입원한 후, 수혈 중 B형 간염에 감염돼 사망했다면 사망의 원인은 '합병증'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의협은 설명한다.

의협은 지침을 통해 "대개는 사망원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긴 오류"라며 "자칫 진실한 사망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침과 다르게 심폐정지를 직접사인으로 기재한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도 "고인의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국제 탄소페스티벌 내달 5일 개막

탄소메카 전북 새 여정으로

탄소 섬유 산업을 조명하는 '제11회 국제 탄소페스티벌'이 오는 10월 5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개막한다.

사흘간 열리는 이 행사는 '탄소 복합재산업 허브 전북, 새로운 여정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크게 국제 콘퍼런스와 탄소를 가미한 부품소재 산업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콘퍼런스에는 세계 최대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독일 MAI 카본클러스터를 비롯해 영국, 호주 등 탄소복합재 분야의 전문가와 하성규 한양대 교수, 박규순 한국탄소산업기술원 박사 등이 참석한다.

또 대학생·대학원생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미래 탄소 전문가 경진대회'와 국내 탄소산업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카본인더스트리 포럼'도 곁들여진다.

이번 산업 전에는 전북테크노파크와 효성, GS칼텍스 등 30여 개 기관·기업이 참여해 탄소섬유, 자동차, 항공, 조선, 에너지, 환경, 재활용, 기계, 전자, 건축, 스포츠, 레저, 의료 분야 등에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한다.

셀룰로스, 아크릴 등 원사를 1,500도에서 가열해 탄화시킨 탄소 섬유는 무게는 강철의 5분의 1로 가볍지만, 강도는 10배나 세 자동차·항공기·로봇·풍력발전기·기계 등 다양한 산업제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고민형 기자

▶ 매일 INDEX
2면 전북, 중기 자금 지원 '최하위'
4면 전주역사, 고품격 철도역 개선 추진
8면 군산시간여행축제 오늘 개막
12면 전주세계소리축제와 함께 즐겁게